

## 공연 불모지 광주 초라한 문화수도

지난 10월 대전 예술의전당을 찾았을 때 부러운 게 있었다. 마렉 야노프스키가 이끄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배너. 괴전드 선생의 외손자로 요즘 인기 절정인 바이올리ニ스트 스테판 피 채키브 공연 안내 팝플릿도 눈에 띄었다. 스페판은 12월에는 부산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최근 전국 순회 공연을 가녔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전주까지 만다녀갔다.

광주는 클래식 공연의 불모지로 꼽힌다. 유명 연주자들이나 단체들의 공연을 보는 건 하늘의 별따기. 기획사들이 대부분 전주 공

위를 접한 분야는 미술과 국악에 불과했다.

전남은 국악 부문에서 다소 높은 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가 하위 2~3위 안에 자리잡고 있어 열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클래식 분야는 가장 심각성을 드러냈다. 2010년 클래식 공연 횟수는 모두 7219회. 이중 광주는 103회로 충북(37회), 충남(102회)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연극도 공연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 전체 공연 횟수는 6만978회. 이중 광주

는 276회로 16

개 시도 중 13

위, 공연 건수는

32건으로 15

위였다. 특히

공연 건수는

2009년의 63건

에 비해 큰 폭

으로 떨어졌다.

연까지는 추진하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광주 공연은 '페스'한지 오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가 폐년 '2011 문예연감'을 살펴보면 이같은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관련기사 12면>

지난 2010년 한해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됐던 문화행사(공연·전시)를 분석한 '2011 문예연감'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문화계 기반이 탄탄하지 않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 구호가 무색하다.

광주의 경우 미술부문을 제외하고는 클래식(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 4개 장르 모두 전체 공연 횟수, 인구 10만명당 공연 횟수에서 10위 밑으로 떨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연극·클래식 등 공연과 전시의 서울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향'을 지향하는 광주지만 무용부문 역시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다. 광주의 경우 공연건수는 16건, 27회로 2009년에 비해 공연 건수와 횟수 모두 하락했으며 전국 순위는 13위와 9위에 머물렀다.

장르 가운데 그나마 상위권을 차지한 부문은 미술이었다. 총 1만 3005건 가운데 539회로 5위였다.

전남은 89건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68건을 기록한 울산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악 장르에서는 전남의 순위가 높았다. 총 3456회 가운데 전남은 139회로 5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26회로 12위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연극·클래식 등 공연과 전시의 서울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활짝 핀 눈꽃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겨울 날씨를 보인 24일, 광주 동구 무등산 정상 주상절리 부근의 나무들에 간밤에 내린 눈이 쌓이면서 하얀 설화가 피어 있다. 광주 기자 jeans@kwangju.co.kr

### '2011 문예연감' 살펴보니

### 클래식·연극·무용·국악

### 공연횟수 전국 10위권 밖

### 전시장, 동구 33곳 광산구는 없어

### 도서시설, 북구 103곳 동구 15곳

## 광주 문화시설 자치구 격차 크다

광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이 자치구 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는 공연과 전시, 도서, 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총 424곳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북구가 147곳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 동구 88곳(20.8%) ▲서구 73곳(17.

2%) ▲광산구 69곳(16.3%) ▲남구 46곳(10.8%) 순이었다.

시설별 자치구 분포 현황을 보면, 총 104곳인 공연시설은 동구가 36곳

으로 가장 많고, ▲서구 30곳 ▲광산구 22곳 ▲북구 12곳이 있는 것으로 짚게됐다. 남구는 4곳에 불과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했다.

광주에 총 59곳인 전시시설은 동구가 33곳으로 가장 많고, 북구 17곳, 서

구 6곳이 있다. 반면, 남구는 단 1곳에 불과했고, 광산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시설(213곳)은 북구가 103곳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광산구 37곳 ▲남구 35곳 ▲서구 23곳 ▲동구 15곳이 운영 중이다.

지역문화복지시설(39곳)은 서구 12곳, 북구 11곳, 광산구 9곳, 남구 4곳, 동구 3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보급전수시설(9곳)은 북구 3곳, 서구와 남구 각 2곳, 동구와 광산구 각 1곳이 있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자치구 별로 문화기반시설이 큰 편차를 보이며 해당 자치구 주민의 경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워진다"

며 "앞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때 지 역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현섭 비리' 연루 여수 시·도의원 4명

### 대법 의원직 상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덕수(54)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병근(60)·최철홍(48) 의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판부는 또 여수시의회 이기동(55)·정병관(62) 의원에게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재판부의 원심 파기 사유가 이들 의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죄로 각각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광주고법의 법리해석을 문제삼은 것으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인공해수욕장 사업 등과 관련 오전 시장과 미찰을 빙다 혐조를 부탁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

던 오전 시장한테서 격려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전 시장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고, 도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여수시의회는 재적의원이 26명에

서 21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애초 이

날 3명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선거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결원시 60일 이내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12월 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보선은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지게 돼 당분간 여수시의회는 의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현기자 ckim@kwangju.co.kr



CHANCE  
FOR H

리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오직 체어맨 H만이 드리는  
하이오너 드라이버를 위한 특별한 혜택

3,600만원대에 체어맨H를 소유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

(300만원 등록비 지원 선택 시 가능)

#### Event1 H Special Program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선택5
300만원 등록비 지원	36개월 무이자할부 선수 20%	200만원+6.9% 등록비 지원+장상할부 (할부금증수수료 면제)	200만원+4.0% 등록비 지원+저리할부 (선수율 10%, 36개월)	200만원+H특별리스 등록비 지원+H특별리스 프로그램 월리스로 329,000원 (선수율 30%, 유예율 60%)

#### Event2 Royalty Program

당사 차량 보유 또는 당사 차량 출고경험 고객 추가 지원 ②대체 100만원, ③대체 130만원, ④대체 150만원 DC

차량 구입 문의

〈광주권〉 광주중앙 062-529-0003 서광주 062-383-3434 광주광산 062-952-3330 북광주(첨단) 062-971-0990 동광주 062-515-1900 광주푸암 062-655-4001

〈전남권〉 순천 061-745-3666 신여수 061-654-5522 순천중앙 061-723-7100 목포중앙 061-277-8000



CHAIRMAN H  
New Classic



LED 큐비네이션 램프가 조화된  
클래식 후면 스타일

세련된 스티일과 높은 시인성의  
트립 컴퓨터 내장 수퍼비전 클러스터

격조 높은 감성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브리온 컬러 인테리어 에디션

고급 디자인으로 완성시킨  
높은 편의성의 엔진스타트 버튼